

전국 간호학생 체육대회를 마치고

대한 간호학생회 체육부장 유 필 옥

고요한 밤입니다.

마음을 가라 앉히고 살쁘시 창가에 앉아 까아만 하늘을 바라봅니다.

조금 전 까지만 해도 각 학교에서는 그네들의 선수들과 공의 움직임을 보며 가슴 조리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우성치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매아리치며 하나, 둘 까아만 하늘로 사라져 가고 나의 조그만 가슴은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가득할 뿐입니다.

대한 간호 학생회 체육부장이란 직책이 처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커다란 일을 나의 이 작은 몸집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무척 걱정이었지요.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선 잘 이끌어 봐야겠다는 용기가 용솟음 치더군요. 나이팅게일 음악회를 막 마치고 이어 체육대회 행사에 있어, 좀 더 알찬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임원들은 조그마한 머리를 마주대고 정성과 힘을 합쳐 함께 뛰었지만 생각과는 각도가 달라진 결과에 대해 반성하드르써 앞으로의 발전이 있게 되리라 믿어요.

각 학교에서는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실습과 강의를 모두 해가면서 또 운동연습을 해야 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예요.

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기 전에,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뛰 어보고 서로 미소하드르써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유있는 생활이 될 것 같아요.

그럼 까아만 하늘을 향해 우리들만의 하이얀 마음을 아르새기며 보다 큰 내일의 발전을 기약하던 서 끝으로 6월 5일에 있었던 제 5회 전국 간호학생 체육대회를 빛내기 위해 참가한 23個校 팀과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우정있는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말 드립 니다.